

[적령기 고정관념 타파 프로젝트!]

차별 없는 나라로 2009

다음은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일까요?

[명사]나이가 어떤 표준이나 규정에 이른 때.

바로 적령기를 뜻하는 말입니다.

○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니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여자나이 28살이면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다시 심사숙고 해보라고 하십니다.

○ 지하철에서 만화책 읽는 나를 보던 할아버지가 나잇살 먹은 게 만화나 본다며 한 마디 하시더군요.

[2008 일상 속 나이차별 사례집 中_민우회]

공부할 나이, 결혼할 나이, 만화책 볼 나이가 정해져 있을까요? 나이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스며든 것일까요?

자아! 우리를 정신적으로 고단하게 만드는

‘적령기’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것을 모니터하여

생각 한 토막, 말 한마디, 삶의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해요!

“내 멋(내 멋대로 산다!)” 모니터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 주저 말고 함께 해요! :)

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

적령기 고정관념 모니터단원을 모집합니다!

참가대상_ ‘적령기’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

활동기간_ 2009년 6월~9월

활동영역_ 신문기사, 인터넷 매체, 드라마, 광고 등

활동방법_ ① 일주일에 1회 가량 인터넷 채팅 등을 이용한 정모를 통해 수집한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② 사례 나눔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적령기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재미있는 활동 및 실천 기획해보기

문의: 노동반차별팀 폴/ E-mail: paul@womenlink.or.kr / Tel: 02-737-5763

반차별 2009 활동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

블로그(<http://blog.daum.net/tostar>) 여러분께 활짝 열렸습니다.

일상 속 차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, 시시콜콜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연들

차별에 대처하는 민우회의 재치 있는 대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놀러오세요! :)